재만(在満)작가 아오키 미노루(青木實) –「만인 이야기(満人もの)」, 그리고 전후

유조호 (9/18) 사변 86 주년 기념일　오카다 히데키

들어가며

‘만주국’ (이하, ‘’생략) 의 일본문학을 논할 때 아오키 미노루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14 년도 채 되지 않아 단명한 만주국에서 1932 년 10 월부터 1942 년 12 월까지 문예 동인 잡지『작문(作文)』간행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일본 작가를 대상으로 「만인 이야기(満人もの)」를 쓸 것을 주장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만인(満人)」이란, 재만 중국인을 가리키며, 당시 중국인을 일반적으로 일컫던 「지나인(支那人)」(경멸어)과 구별된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아오키 미노루 문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그의 약력을 소개해 두겠다.

1909 년 4 월 4 일 도쿄시 시타야쿠 카나스기 카미쵸에서 태어남
28 년 3 월　호세대학 상업학교 졸업
같은해 4 월　만철 도쿄지사에 입사
30 년 12 월　만철 대련 도서관 사서로 전근, 만주로 이동하면서 동양대학 야간부 문학과 중퇴
32 년 10 월　동인잡지 『문학』(제 3 집부터 『작문』)으로 제목을 바꿈) 창간
40 년 4 월　봉천철도총국 애로(愛路)과로 전근
42 년 12 월　『작문』종간 (전 55 집)
46 년 9 월　일본으로 귀환
50 년 7 월　국립 국회도서관 주사
64 년 8 월　『작문』복간
97 년 4 월 20 일 서거 (향년 88 세)

아오키가 만주 시절에 간행한 작품집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확인된다.

(A)『화연 (花筵)』(수필집) 대련 시서 클럽 34 년 12 월 1 일
(B)『부락의 민(部落の民)』(수필・소설집) 만철철도총국부업국 애로과 42 년 3 월 31 일
(C)『북방의 노래(北方の歌)』(소설집) 국민화보사 42 년 12 월 10 일
(D)『유묵(幽黙)』(수필・소설집) 작문사 43 년 4 월 25 일
(E)『문예시론집(文芸時論集)』(평론・수필집) 봉천대판옥호서점 44 년 8 월 25 일

1. 「만인 이야기(満人もの)」

평론「“만인 이야기”에 관하여」『신천지』38 년 1 월

*우리 (일본인)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중국인의 움직임에 의해 성립한다.

*감정이나 이해의 충돌이 있어 중국인에게 할말이 있을 지라도 그들은 반론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평범한 서민들을 묘사하고 싶다.

아오키의 인도적 정의감과 만주국에 사는 일본인의 의무감에서 태어난 「만인 이야기」를 세 타입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1-1. 농사합작사운동

중국 동북지방의 농촌은, 농산물 유통 기구를 독점하여 장악한 양잔 (糧棧, 중개업자) 제도에 의해 성립되었다. 지주・상인(양잔)・고리대금업자 삼위일체의 토호열신에 의해, 농민들은 착취당하고 억압당해 왔다. 이 제도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만주국 정부는 34 년에 금융합작사, 37 년에 농사합작사를 설립하여 농촌 시장의 통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토 다이시로는 빈강성수화현(濱江省綏化県)에 들어가 이 농사합작사 운동으로 농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 한다. 농촌에 소작농이나 고용살이 농부를 중심으로 한 실행합작사를 조직하여, 그들의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낡은 양잔제도를 근절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운동은 ‘북만형 농사합작사 운동’이라 불리며 유명해지지만, 40 년, 금융합작사와 농사합작사가 흥농합작사로 통합됨으로써 사토와 그들의 꿈은 단절됐다. 더욱이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41 년 11 월, 관동군헌병대에 의해 ‘재만일계 공산주의운동’이라는 죄명으로 일제 검거 되었다.

아오키는 이 ‘재만형 농사합작사 운동’에 공명하여, 일련의 「만인 이야기」를 그려 『북방의 노래(北方の歌)』라는 작품집으로 엮어냈다.

우에노 이치사부로「아오키 미노루 저『북방의 노래』촌평」

*‘대체적으로 예술적 완성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 ‘팸플릿적인 지식을 그저 그럴 듯하게 꾸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1-2. 애로(愛路)운동

1940 년 4 월, 아오키는 봉천철도총국 애로과로 전근하여, 철도 경호에 해당하는 현지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은 『부락의 민(部落の民)』에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무대는 작은 역에 설치된 철도 경호 출장소로, 그 임무는 ‘연선 농민을 철도 애호단으로 조직하여 비적정보의 연락, 홍수, 탈선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도우러 달려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계열의 작품도, 문학적 감동을 주는 작품은 적다. 이 두 계열의 작품은, 어느 것도 지도하는 측(일본인)과 지도 받는 측(중국인)과의 갈등,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치와 마주한 아오키의 작품에 대해, 다케우치 쇼이치는 창작동기와 그 의욕에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소재를 문학적 레벨로 성숙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아오키 미노루 저『북방의 노래』출간」

* '민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라는 의도가 지나치게 성급하고 손쉽게 나타난다.

*단순한 정책 해설적 소설

1-3. 평범한 서민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틀에서 벗어나 '작은 달팽이와 같은 일가의 생활을 묵묵히 지키고, 어떤 세상에서도 풍족함을 알지 못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포착한 작품에는 뛰어난 것들이 있다. 「파란 옷의 소녀(青服の少女)」, 「사진(砂塵)」, 「살의(殺意)」, 「토공고역(土工苦力)」,「한 농부(一農夫)」,「불행에 관하여(不幸について)」,「기괴한 하루(奇怪なる 一日)」,「새벽녘의 어둠(暁闇)」등이 그러하다.

「파란 옷의 소녀 제 1 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조부모의 손에 자란 가난한 소녀 방매(芳梅). 그녀가 사는 만인부락은 최근 새롭게 건설된 일본인 주택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어느 날, 방매는 빨래를 말리는 곳으로 날아온 유카타를 주워 그 주인인 일본부인에게 건넸지만,

"……정말이지 조금도 방심할 틈이 없다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듯 방금 전 부인의 새된 목소리가 담장 안에서 흘러나왔다.

방매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슬퍼져, 돌아가신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일본인의 가슴에 새겨진 중국인 멸시의 실태를, 일상생활의 사소한 한 장면 속에서 포착했다.

「토공고역(土工苦力)」: 산동성에서 벌이를 온 류(劉)는 고향에 돌아가려 하지만, 문맹인 탓에 봉천역에서 어떤 창구에서 표를 사야 할 지 모른다. 그 때 '흰 손바닥'을 가진 친절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표를 사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가둔(蘇家屯)까지 가는 표였고, 류는 겨우 저금한 아주 적은 돈으로 추징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맞닥뜨린다.

*글을 읽을 수 없다는 이유로 '흰 손바닥'을 지닌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농민의 비애를 그리고 있다.

국책의 틀에서 벗어나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을 그릴 때, 아오키의 필치는 평온해지며, 자비와 애수가 가득한, 서정적인 「만인 이야기」가 엮어 진다. 이 계열의 작품에는 높은 평가가 부여되어도 좋을 것이다.

2. 가인(歌人)으로서의 아오키 미노루

아오키의 문학적 출발은 17, 18 세 즈음 단가 잡지『아시카비(あしかび)』에 투고한 것으로 시작된다. 전후에도 생활 속에서 태어난 서정적 단가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본 적은 없었다. 이 서정적 단가의 연장선에서 그려진 산문・수상(随想)을 모은 것이『유묵(幽黙)』이다. 벗인 아키하라 카츠지는 아오키 문학의 '본령'을 '단면의 신선함이며, 언어의 적절함', '부정을 꺼리는 마음, 약한 자를 향한 뜨거운 시선, 죽자 사자 노력하는 자에 대한 칭찬'이라 말하고 있으나, 그 '본령'이 가장 발휘된 작품집이, 이 『유묵』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평범한 서민들'에 열거한 「토공고역(土工苦力)」,「기괴한 하루」가 『유묵』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평가하는 「만인 이야기」는, 이 『유묵』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아오키의 '본령'이 태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오키는 이 작품집의 '후기'에서 '인생의 낙탁면(落魄面)'이 짙게 표출되어 있다고 설명하지만 아오키 작품 전체에 떠도는 애수의 기조음은, 그의 불행한 성장 배경과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비롯됨을 덧붙여 둔다.

3. 전후의 아오키 미노루—복간『작문』에 대하여

약력에도 제시하였듯이, 아오키와 만철관계의 문학 애호자들은 대련에 있었던 시인 그룹을 규합하여, 32 년 10 월, 문예동인잡지를 발행한다. 문예가 미성숙한 만주국에 있어서, 42 년 12 월까지, 격월간『작문』을 55 집까지 계속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발행소를 관동주 대련에서 봉천으로 옮기고자, 잡지의 정리 통합을 진행했던 만주국에 의해 계속이 승인되지 않아 좌절하였지만 재만 일본문학에 큰 공적을 남겼다.

일본에 귀환한 후, 구 동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아 64 년 8 월에 복간『작문』을 간행한다. 만주국과 문학을 유일한 유대로 둔 동인들의 연대감이 강하여, 동인 중 누군가가 작품집을 내면 반드시 잡지에서 서평으로 다루었고, 누군가의 부보를 들으면 추모특집을 구성했다. 최종호에 기록된「고인 동인 표」에 게재된 동인의 이름은 42 명에 달한다. 아오키는 후반 10 수년간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이 긴 『작문』의 역사를 저변에서 지지해 온 한 사람이었다. 아오키의 뒤를 이어 편집을 담당한 아키하라 카츠지가 2015 년 4 월 17 일에 사망하고, 『작문』은 208 집을 내고 종간한다. 전후의 아오키는 사서로서 「만주문예자료」란을 연재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과 소개에 진력했다. 이러한 노력도 포함하여, 복간 『작문』은 만주국을 재검증할 때 미처 다 발굴하지 못할

보고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나가며

나는 재만 중국인 작가 왕추형(王秋螢)으로부터 봉천을 거점으로 활동한 『문선(文選)』동인과 재봉 『작문』동인이 중일 작가의 좌담회를 열 기회가 있어, 좌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히나타 노부오로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행위가 정말이지 불만스럽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을 번역하여 아오키씨에게 보냈더니, 아오키씨는 히나타씨의 말에 연연하며 '하지만, 뭔가 막연하고 석연치 않은 것이 내 안에 꺼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이어 말했다.

> 나에게는 이국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다. 만약 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대해 스스로 반대의 행동을 뭔가 해 왔을 것이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 앞잡이가 되는 일의 일단에 참가한 것뿐이지 않은가. 「두 친구」『작문』87 년 7 월 9、10 쪽

왕추형이 기억하는 히나타의 말이 정확했는지 어땠는지는 차치하고,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의 일단을 도맡았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면, 피침략자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아오키는 말한다.

물론, 전후에 쓰여진 문장이고, 당시 이러한 입장이 명확하게 의식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만인 이야기」의 주장에서도, 중국인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도 어떤 '부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아오키를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의감과 의무감에 마음이 움직여 집필한, 「사회적 양심」이 돌출 된 듯한 「합작사 운동」, 「애로운동」에서 제재를 취한 계열의 작품에는 예술적 승화가 부족했다. 그리고 서정적 단가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묵』의 세계가 아오키문학의 '본령'이라면, '서민들' 계열의 작품은, 그 풍부한 서정성 덕에 아오키의 '본령'이 발휘된 「만인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약한 자, 억압 받는 자를 향한 동정과 연민에서 머물지 않고, 식민지에서 살아간 일본인의 '부채'도 배어 나온 작품군도 평가할 만하다.